

tvN종방극 '슈룹' 신예 문상민 "롤모델 박서준 길 밟고 싶어요"

tvN '슈룹'서 김혜수 둘째아들 성남대군 역 첫 주연·사극에도 안정적인 연기 호평 얻어 "슈룹, 잊지 못할 것...로코물도 자신있어"

신예 문상민(22)은 tvN 종방극 '슈룹'의 가장 큰 수확이다. 중전 '화령'(김혜수) 둘째 아들 '성남대군'으로 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뛰어난 외모와 190cm의 큰 키도 한 몫 했지만, 첫 주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연기력을 선보여 호평 받았다. 김형식 PD 역시 첫 인상이 강렬했다며 "여성 스태프의 술렁이는 반응을 보고 캐스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상민은 오디션 때 간절했다며 "극본이 재미있는 만큼 '나만 잘 해내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사실 오디션 때 (스태프들이) 술렁거린지는 몰랐다. 워낙 간절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내 원픽은 성남대군이었던 거다. 그때 극본만 보고는 성남대군이 후반부에 중요한 키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성남은 예측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어떻게 연기할까?'라는 기대감이 컸다. 슈룹 인기를 예상했나? 바라왔던 목표를 하나씩 이룬 것 같아서 실감났다."

이 드라마는 조선시대 사교몽치 왕자를 위해 왕실 교육 전쟁에 뛰어드는 중전 화령 이야기다. 1회 시청률 7.6%(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로 시작, 16회는 16.9%로 막을 내렸다.

세계 넷플릭스 6위까지 오르는 등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문상민은 첫 사극 도전이다. '세자'(배인혁) 죽은 전후의 감정 변화에 초점을 맞춰, '성남이 무언가를 위해 이렇게 까지 희생했을까?' 고민했다. "원래

성남은 왕세자 욕심도 없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었다"며 "형(세자)이 죽은 후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다. 좀 더 침착하고 강단있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남대군은 여성 시청자가 폭 빠질 수밖에 없는 캐릭터다. "굉장히 완벽한 인물"이라며 "모든 서사가 성남에게 있다"고 할 정도다. "극본만 잘 소화한다면 매력적인 인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극본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며 "대놓고 맛있는 장면이 많았지만, 오히려 '담백하게 풀면 어떨까?' 싶었다. 대사를 툭툭 던지면서 시크한 모습을 강조, 부담스럽지 않게 보이도록 했다"고 전했다.

물론 승마를 배우고, 한복을 입고 연기하며 어려운 점도 많았다. "승마장에서 말과 거의 사투를 벌였다"며 "첫 등장 신에서 경직되고 긴장한 게 보였다. 촬영 전부터 거의 1년 정도 배웠다. 쉬는 날에도 승마장에 가고, 어느 순간부터 무서움이 없어졌다. 이제는 취미를 넘어 특기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웃었다. "이렇게 한복을 많이 입어본 적도 처음"이라며 "의상팀에서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한복을 준비해줬다. 무채색 위주였고,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은 곤룡포색인 네이비였다. 한복을 입으니 허리를 곧게 세우고 자세부터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엄마 역의 김혜수(52)의 격려는 큰 힘이 됐다. 처음으로 긴 호흡의 작품을 촬영하며

컨디션 관리가 힘들었는데, "배우가 무너지고 힘든 게 보이면 현장도 같이 무너지기 마련"이라고 조언해줬다. "배우로서 작품에 임하는 태도를 많이 배웠다. 선배님이 많은 분량을 소화하면서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며 "선배님과 촬영하면서 얼마 생각도 많이 났다. 이 세상의 어머니는 정말 위대한 것 같다. 선배님이 아들을 잃고 눈물을 흘릴 때 저희 엄마도 오열했다고 하더라. 지금껏 한 번도 못 봤던 나의 따뜻한 눈빛도 봤다고 했다"고 귀띔했다.

문상민에게 슈룹은 "자신감을 심어준 작품"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잊지 못할 것 같다. 나중에 돌아보면 잔하고 몽클랄 것"이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기회가 된다면 정통 사극도 해보고 싶다. 어느 정도 사극 말투 기본기가 잡혀서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번 작품은 캐릭터 연구를 정말 많이 했다. 회차도 많고 출석률도 높아서 개근상으로 30점, 성남을 집요하게 파고 든 점까지 포함해 70점을 주고 싶다. 나머지 공백은 선배들이 채워줬다. 감독님이 촬영 끝나고 '슈룹으로 사랑을 받고 시청자들이 관심 갖다 보면, 배우로서 놓치고 헤이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잘 잡아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처음 연기를 하고, 슈룹 촬영 시작했을 때 마음 변치 않았다."

문상민은 데뷔 3년 여만에 주연으로 성장했다. 2019년 웹드라마 '크리스마스가 싫은 네 가지 이유'로 데뷔했고, 지난해 넷플릭스 '마이네임'에서 막내 형사 '고건평'으로 얼굴을 알렸다. 슈룹 전 티빙 드라마 '방과 후 정생활' 촬영을 마친 상태다. 상처 받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오래 연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혜수가 롤모델



이라고 밝혔는데, '남자배우 중에는 없냐'고 묻자 소속사 선배인 박서준(34)을 꼽았다.

"박서준 선배는 내 마음 속 롤모델이다. 작품을 통해 청년의 아이콘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았느냐. 선배의 길을 밟고 싶다. 나도 로맨틱 코미디 장르물에 자신있다. 일상 연기도 해보고 싶다. 무엇이든 할 때 주저

하지 않는다. 도전하고 싶은 게 많은데, 고민하지 않고 하는 편이다. 이번에 내 목소리를 좋아하고 칭찬해주는 분들이 많더라. 슈룹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는데, 시청자 덕분에. 좋은 기회-에너지 준 만큼 실망시키지 않고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미스터트롯2'냐, '불타는 트롯맨'이냐...트로트 대전

이틀 차 방송...타사 오디션 우승자 대거 몰려



TV조선 오디션 '미스터트롯2'와 MBN '불타는 트롯맨' 경쟁에 불이 붙었다. 참가자와 심사위원, MC 섭외의 거센 바람이 치열했음 뿐 아니라 첫 방송도 이틀 간격으로 확정됐다. 5일 같은 날 각각 지원자 100여 명을 공개했는데, 불타는 트롯맨이 섭외 경쟁에서 약간 밀린 모양새를 보였다. 미스터트롯2가 원조 트로트 오디션의 자존심을 지키지, 서해진 PD가 TV조선 퇴사 후에도 프로그램 인기 명맥을 이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스터트롯2는 서 PD 빈자리를 지우겠다는 각오다. 서 PD는 '미스트롯' 시즌 1·2(2019-2021)와 '미스터트롯' 시즌1(2020)을 통해 트로트 신드롬을 일으켰다.

6월 서 PD가 떠난 후 잡음이 흘러나왔지만, 후임으로 SBS 출신 김상배 PD를 제작본부장으로 낙점했다. 무엇보다 MC 김성주와 트로트 가수 장우영, 장민호, MC 붐 등 미스터트롯을 함께한 이들이 힘을 실어줬다. 여기에 다양한 연령대 심사위원을 발탁, 전 세대 공감을 살 수 있도록 했다.

김연자를 비롯해 진성, 문희경, 홍지윤, 이현우, 작곡가 알고보니 혼수상태, 밴드 'T'아일랜드' 이흥기, 강다니엘, 그룹 '코요태' 신지, '이달의 소녀' 출신 슈, 코미디언 김해중, 이은

지 등이다. 미스터트롯2에는 지상파·종편 트로트 오디션 우승자가 대거 몰렸다. KBS 2TV '트롯 전국제전' 진해성과 MBC TV '트로트의 민족'(2021) 안성준, MBN '보이스트롯'(2020) 박세욱, '헬로트로트'(2022) 오주주가 대표적이다.

SBS TV '트로신이 됐다2-라스트 찬스'(2020) 준우승자 나상도와 트롯전국제전 재하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룹 '업텐션' 출신 선율과 '레인저' 전 멤버 성리는 보이스트롯과 보이킹에 이어 세 번째 트로트 오디션 도전이다. 이 외에도 그룹 '슈퍼주니어' 성민과 배우 한정수, 래퍼 슬피피, 개그맨 손헌수, 전 봄슬레이 국가대표 강한, JTBC '팬텀싱어3'를 통해 결성한 보컬그룹 '레데아모르' 김병민, 미스터트롯1 출신 노지훈·안성훈·이도진·일민·하동근, 가수 성유빈, 트로트가수 박서진, 황민우·민호 형제 등 대중에게 익숙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미스터트롯 시리즈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더욱이 실력자가 줄을 이어 트로트 오디션 '울스 타전' 느낌도 났다. 하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은 시즌제를 거듭할 수록 신선한 얼굴을 발탁하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타 방송에 출연한

이들이 잇따라 지원해 '식상하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제작진은 "타 방송사 오디션 우승자와 준우승자 지원이 몰렸다. 지난 시즌에는 없던 '우승부'를 신설했다"며 "우승부와 현역부뿐 아니라 그에 버금가는 뉴페이스도 포진해 있다"고 설명했다.

불타는 트롯맨은 미스터트롯2와 맞붙 작전을 펼쳤다. 미스터트롯2 심사위원인 장윤정 남편 도경완을 MC로 발탁했다. 심수봉을 비롯해 남진, 설운도, 주현미, 조항조, 김용민, 홍진영, 신유, 박현빈, 조정민, 작곡가 윤일상, 윤명선, 그룹 'SG 워너비' 이석훈, 'JYJ' 김준수, '삼' 출신 이지혜, 개그우먼 신봉선, 뮤지컬배우 김호영, 그룹 '오마이걸' 유빈 등을 심사위원으로 내세웠다. 미스터트롯2와 마찬가지로 심사위원 연령 폭을 넓혀 신규 조화를 이룬 셈이다.

미스터트롯2에 비해 지원자 유행세는 떨어졌다. 불타는 트롯맨은 타사 오디션 출신이 30% 가량 됐지만, 우승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JTBC '팬텀싱어'(2017) 우승팀 '포르터 디콰트로' 멤버 손태진과 JTBC '히든싱어' 시즌 6(2020) 설운도편 우승자 한상규, 헬로트로트 준우승자 강설민이다. 뮤지컬배우 예복과 배우 박규선, '프로듀스 101' 시즌2(2017) 출신 이후림, 개그우먼 이영자 매니저 송성호, 개그맨 김태원, 설운도 아들이자 그룹 '엘피아이' 멤버 이승현, 미스트롯2 톱4 김태원 사촌오빠 김승규, 전 추곡선수 전종혁 등도 눈에 띄었다. 특히 참가자 약점을 보완, 그룹을 결성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띄었다. 3인조 '불타는 소년단' '핑크 리얼 무브'와 4인조 '라오니엘' 등이다.

불타는 트롯맨은 20일 오후 9시10분 첫 선을 보인다. 미스터트롯2는 이틀 뒤인 22일 오후 10시 전파를 탈 예정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지원자 추가 모집을 하는 등 원색 발굴이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서로 질세라 홍보 자료를 내면서 첫 방송 전부터 피로감도 쌓인 상태다. 하지만 한 풀 쉼이 트로트 오디션 인기를 재점화, 새로운 스타 발굴 기대감도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서 PD는 직접 투자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MBN은 제작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MBN은 방송을 틀어주고 시청률만 가져가는 구조"라며 "미스터트롯2는 참가자만 놓고 봤을 때 우위로 점쳐지지만, 어디서 스타가 탄생할지는 모를 일"이라고 했다.

뉴진스 '쿠키', NTY 선정 '2022 베스트송'



4세대 간판 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데뷔곡 '쿠키(Cookie)'가 미국 뉴욕타임스(NYT)로부터 올해 최고의 노래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뉴진스의 '쿠키'는 지난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발표한 '2022 베스트 송' 72개 곡 중 K-팝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번 뉴욕타임스의 '2022 베스트 송'은 3명

의 대중음악 평론가가 뽑았다. 그 중 한 명인 존 캐러머니카(Jon Caramanica) 평론가는 '쿠키'를 11위로 꼽으며 "인상적인 K-팝 걸그룹 뉴진스의 데뷔앨범 최고의 곡인 '쿠키'는 과하지 않은 편안함이 가장 두드러진다"라고 호평했다.

캐러머니카 평론가는 미국 래퍼 글로릴라(GloRilla)의 '투마로우 투(Tomorrow 2)'와 미국 래퍼 케이 플록(Kay Flock)의 '셰이크 잇(Shake It)'을 공동 1위로 꼽았다. 두 곡 모두 미국 래퍼 걸 심어슬라이터 카디 비가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한편, 민희진 대표이사사가 이끄는 어도어(ADOR)의 걸그룹 뉴진스는 '쿠키'가 실린 데뷔앨범 '뉴진스(NewJeans)' 발매와 동시에 전 세계를 아우르는 대세 그룹이 됐다. 내년 1월 새 싱글 'OMG'로 돌아온다.

카라 '웬 아이 무브', 국내외 음원차트 호성적

'데뷔 15년차' 그룹 카라(KARA)가 7년 6개월 만에 완전체로 컴백해 여전한 영향력을 뽐내고 있다.

지난달 29일 스페셜 앨범 '무브 어게인(MOVE AGAIN)'을 발매한 카라는 컴백과 동시에 국내외 차트를 점령했다. 발매 첫날 앨범 전곡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 진입, 타이틀곡 '웬 아이 무브(WHEN I MOVE)'는 벅스 일간 차트에서 5일간 1위를 차지했다. 이 곡은 상승세를 타고 멜론 톱 100 차트 12위까지 올랐다.

신곡은 밀레니얼 스타일의 편곡이 인상적이다. 멤버 강지영이 작사·작곡에 참여했고, 니콜은 노랫말 작업에 힘을 보태 음악적 역량을 입증했다.

카라는 국내를 넘어 일본에서도 호성적을 내고 있다. '웬 아이 무브' 일본버 버전 뮤직비디오는 일본 음원사이트 라인뮤직 '뮤직비디오 톱100 실시간 차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 이들은 오는 23일 일본 대표 음악 프로그램 TV아사히 '뮤직 스테이션(MUSIC STATION)' 연말 특집에 출연한다. 오랜만에 가요계에 돌아온 만큼, 카라는 전



방위에서 활약하고 있다. 먼저 '2022 마마 어워즈(2022 MAMA AWARDS)'에서 첫 컴백 무대를 가진 뒤 KBS2 '뮤직뱅크', MBC '쇼! 음악중심', SBS '인기가요'에서 연이어 무대를 꾸렸다. 이어 카라는 JTBC '아는 형님'을 비롯 웹에는 '킬링보이스', '문명특급', '아이유의 팔레트', '카페 기생충' 등에 출연해 컴백 주간을 풍성하게 채웠다.

카라의 활동에 후배 아티스트들도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아이유와 효린, 레드벨벳, 세븐틴, 임나영, 드림노트, 있지, tvN '코미디 빅리그' 팀 등이 '웬 아이 무브' 댄스 챌린지에 동참해 훈훈함을 자아냈다.